

'반계 유형원 새로운 조선을 꿈꾸다' 발간

부안문화원, 전북도청 김승대 학예연구관 글 모아 만든 연구서로 3부로 구성

부안문화원(원장 김영렬)에서는 반계 유형원, 새로운 조선을 꿈꾸다'를 발간했다. 이 책은 부안 우반동의 반계 유형원과 관련된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고 연구해 온 전북도청 김승대 학예연구관의 글을 모아 만든 연구서로 크게 3부로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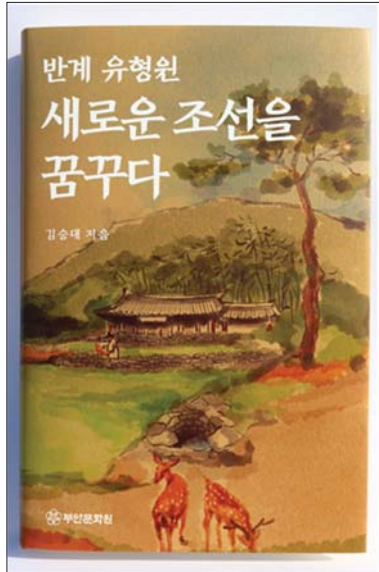
1부에서는 반계 선생의 학문적 배경과 개혁 사상의 뿌리를 집안의 가계 분석을 통해 접근했고,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반계학'에 대한 시론적 연구를 적시했다.

2부에서는 부안에서 볼 수 있는 반계 유적을 통해 반계 선생이 남긴 발자취를 확인하고, 부안 우반동을 한국실학의 터전이자 실학의 메카, 치유와 개혁의 땅으로 구체화했다.

3부에서는 반계 선생 추수에 대한 본격적인 시론을 제시함과 동시에 유형원과 '반계수록'의 가치를 알아본 덕촌 양득중과 담와 홍계희에 관한 연구도 함께 실었다.

부안 우반동에서 반계 유형원이 택한 삶의 지향점은 심신의 치유, 그리고 또 다른 개혁의 준비라고 보았다. 또한, 반계 선생은 '새로운 조선을 꿈꾸며 반계수록'을 편찬했다. 반계수록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실학의 바이블이다. 반계 선생은 이를 통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치유와 개혁'의 화두를 던지고 있다.

실제 반계 유형원은 우리나라 실학의 비조(鼻祖)로 세계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건설의 이상을 제시한 실학자이다. 실학은 '실사구시'와 '이용후생', '경세치용'을 주창한 학문이다. 유



부안문화원에서는 '반계 유형원, 새로운 조선을 꿈꾸다'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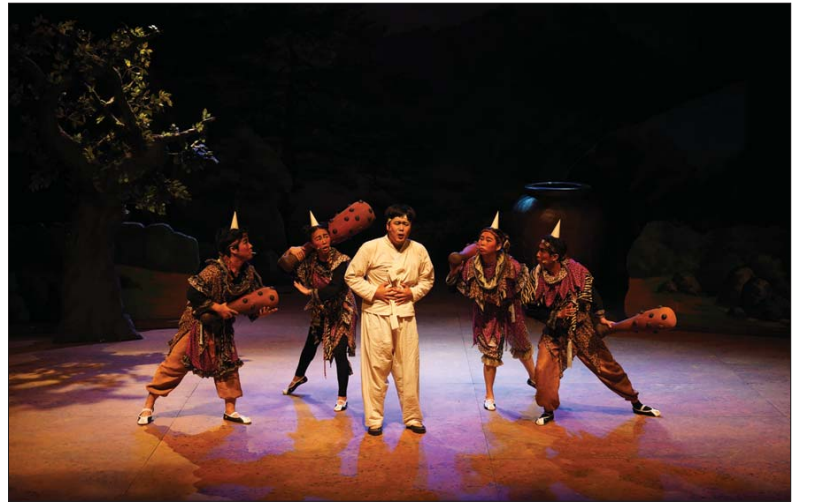
형원은 그의 아버지가 역모로 몰려 죽고, 31세 때 조부 상을 치른 후 엄습한 폐병으로 인해 관직생활을 단념하고 전라북도 부안으로 입향했다. 반계에 있어 부안 우반동은 임진왜란·병자호란으로 끼여진 신화와 명·청 교역기의

국가적 굴욕을 새로운 개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선택한 절치부심의 땅이기도 했다. 그는 우반동에 집거해 52세까지 20여년 간 걸쳐 '반계수록' 26권 13책을 집필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개혁을 제시하고 그의 실학사상을 완성했다.

반계 유형원의 개혁 의지와 사상은 당대 지식인들의 경세론이자 이상론이 되었으며, 후학들의 학풍 조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가 저술한 반계수록은 그가 죽은 후 100여 년이 지나 덕촌 양득중, 성호 이익, 약산 오광운, 담와 홍계희, 순암 안정복 등 실학적 소견을 가진 학자와 관료들의 노력의 결실로 간행되었고, 다산 정약용의 실학을 집대성하는 시발점이 됐다.

특히, 이 책에서는 부안 우반동과 변산 뿐만 아니라 전국의 반계 유적을 총망라했고, '부안의 반계길' 등 향후 문화콘텐츠 활용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안의 유교문화유산으로 부안 3현(지포 김구, 반계 유형원, 간재 전우)에 대한 현황과 과제도 언급했고, 최근 필자가 발굴한 부안 '동림서원지' 등을 통해 새로운 '반계학' 연구의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영렬 부안문화원장은 "2022년인 내년은 반계 탄생 4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앞으로 반계 선생의 뜻을 기리고, 그에 대한 꾸준한 연구사업을 통해 실학의 발원지인 부안 우반동이 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예원당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국악나들이 '이야기보따리'를 개최한다.

국악 아동극 '요술항아리 똑딱' 공연

국립민속국악원, 4월 3일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에서는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예원당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국악나들이 '이야기보따리'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3세 이상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4월~5월, 매주 토요일에 국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획 공연이다.

4월 3일에 만날 극단 달을 품다의 '요술항아리 똑딱'은 전래동화형 국악 뮤지컬로, 무서운 도깨비의 요술항아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

이야기를 인형과 배우가 함께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다.

도깨비가 숨겨놓은 보물요술 항아리를 발견한 만구가 도깨비들과 친구가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유쾌하게 그렸으며, 친숙한 전래동화와 전통놀이(가래잡기)가 더해져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행복한 웃음을 선사할 것이다.

관람문의는 전화(063-620-2329) 혹은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통해 선착순 200명에 한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 삼례책마을에 전국 유일 그림책 특화 미술관 개관

기획·상설전시 공간 등 갖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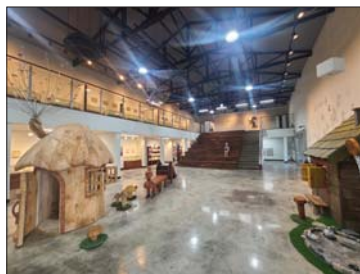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완주군(군수 박상일) 삼례책마을에 전국 유일의 그림책 특화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18일 완주군은 '그림책 미술관'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림책 미술관은 세계문화사적 가치가 높은 그림책과 그림책의 원화 작품을 수집, 연구, 전시하는 국내 유일의 그림책 특화 미술관이다. 양곡창고를 개축해 그림책과 미술 문화의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미술관 내부는 1층 기획전시 공간과 2층 상설전시 공간, 그리고 1층과 2층을 연결해 관람객의 문화행사 참여와 휴식을 위한 어울림 계단으로 구성했다.

개관기념전으로는 '요정과 마법의 숲' 기획전이 마련됐다.



1940년대 영국 동화작가 G. 그레이브스의 친필 원고와 아일랜드 그림책작가 나오미 헤더의 원화가 최초로 공개된다. 이 원고와 원화들은 1940년경에 완성됐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출판되지 못하고 그동안 잊혀진 작품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그림책 원화의 이미지를

조형작품으로 형상화해 그림책 전시의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고 있다.

상설전시로는 '빅토리아시대 그림책 3대 거장전'이 열린다. 19세기 후반 세계 그림책 역사에 영원히 남을 걸작들을 쏟아낸 랜돌프 칼데콧과 케이트 그린어웨이, 윌터 크레인 등 이른바 빅토리아 시대 그림책 3대 거장의 그림책과 원화, 친필 편지 등이 전시된다.

한편 책박물관에서는 특별기획전 '문자의 바다 파피루스부터 타자기까지'가 전시 중이다. 인류 최초의 문자인 고대 레반트 뽕나무를 비롯해 이집트의 파피루스, 인도네시아 바타족의 골각문자, 아메리칸 인디언의 압각 그림문자와 세계 여러 나라의 필사본, 타자기 등 모두 186종 2,775점의 유물을 만나볼 수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하이브'로 사명 변경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장 방시혁·빅히트)가 새로운 회사명 '하이브(HYBE)'를 공식 발표했다.

빅히트는 지난 19일 '빅히트 레이블즈' 유튜브 채널에 올린 '뉴 브랜드 프레젠테이션 (NEW BRAND PRESENTATION)' (브랜드 발표회) 영상을 통해 새 회사명과 미션, 조직 구조, 신사업 등 기업 전반에 걸쳐 단행된 변화를 예고했다.

빅히트는 새 이름 하이브는 연결과 확장, 관계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수평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자 관계사, 다양한 네트워크, 아티스트와 팬 등 여러 유닛이 긴밀하게 모여 이루는 집합체다. "회사의 새 이름인 동시에 조직 구조와 일하는 문화, 기업의 방향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의미다.

방시혁 의장은 "빅히트가 기존의 공감대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현재의 사업을 이루고 이를 연결, 확장할 수 있는 구조의 상징으로 새로운 사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명은 바뀌지만 '음악에 기반을 둔다'는 기업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빅히트는 새로운 미션 '위 빌리브 인 뮤직(We believe in music)'을 발표했다. '음악으로 감동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지향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를 '방탄소년단'(BTS)을 중심으로 회사의 근간이 된 빅히트의 레이블 부문은 '빅히트 뮤직'이라는 레이블로서 존속하며 정체성을 잇는다.

빅히트는 "하이브의 새로운 심플 역시 다양한 화음을 쌓은 오션보가 하나의 가로선으로 압축된 모습으로 표현돼, 음악에서 출발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기업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았다"고 했다.

빅히트의 새로운 사명 하이브는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 결의로 확정된 이후 공식 적용된다.

/뉴시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